

신민경은 유년을 함께한 가사도우미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동안 연락이 끊긴 가사도우미를 찾기 위해 몇가지 노력과 시도를 했다. 이내 연락이 닿아 유지하던 중, 노령의 가사도우미는 작고하게 되었다. 이때 돌아가신 가사도우미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신민경 개인의 고통과 정서는 가족 전체와 공유하는 정서가 아닌 신민경 개인만의 정서로, 본래는 돌아가신 가사도우미의 장례식장과 묘지를 찾으려는 시도가 작업의 출발점이다.

신민경은 차차 동일한 시의 야을 동일한 대상과 함께 보냈다 하더라도 가사도우미에 대한 가족들 개개인의 정서적 유대는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러한 사실에 재차 질문하며 점차 개인적 사건에서 보편적 시선을 추적해왔다.

하나의 대상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 역사적 가치는 대상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어진다. 영구적 기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낼 만큼 그리움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면, 빠르게 망각되면서도 감동할만한 장면들 또한 그러할까? 예술현장에서 감각만으로 만들어지는 정서적 유대는 무엇을 지시하는가? 이때 만들어진 정서적 유대라는 것은 작가 개인의 삶에서만 역사적인 인물인 가사도우미와 작가 사이의 정서적 유대와 함께 위치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를 생각했을때, 우리의 공감의 정치학은 대상에 대한 ‘진실한 유대’를 지시하는가? 마지막으로 이 사이에 흔들리는 한 개인의 태도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될까?

임다울